

미래 기술 개발 이끄는 아름다운 '맞손'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 현대차와 연구 협약 독자적 영상가시화·파 제어 기술 접목 연구 수행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 연구소(소장 강래형 교수)가 자동차 관련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산학협동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현대자동차와 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수행한 현대차 미래기술 연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후 관련 기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한 것. 양 기관은 내년 10월까지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데 합의했다.

전북대 로스알라모스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시도된 적 없는 독자적인 영상가시화 기술과 파(wave) 제어 기술을 현대차 미래기술 연구에 접목했다.

이 기술은 현대차의 미래기술 연구비 지원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했고, 이번 산학협동 연구과제를 통해 앞으로 실제 여러 시편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

를 구축하는 데 힘을 쏟을 예정이다.

강래형 소장은 "앞선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의 독자적 기술이 현대차의 미래기술 개발에 좋은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번 협약을 통한 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기술개발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동차 산업 뿐 아니라, 항공우주, 건축, 토목, 수송기계, 복합재료, 반도체 등 다양한 산업에 적용하고자 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는 기계, 전자, 탄소소재 및 스마트 재료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된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최첨단 비파괴검사기술에서부터 스마트 센서 개발, 복합재료 등의 소재 기술, 신호처리 및 제어 기술 등을 보유하여 구조 건전성 관리 분야 세계 최고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 한국공학연구소 전경.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전북 소재의 다양한 기업체 '동력, 항공, 드론, 탄소섬유, 전자부품 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방면의 산학 연구를 수행하며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방업

체 등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미국 로스알라모스연구소, 독일 MAI Carton 등과도 활발히 교류하며 연구진들의 국제화 능력을 배양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

도교육청, 찾아가는 학교자치 역량강화 연수 추진 박차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학교자치 조력 인력과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학교자치 연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교직원들의 학교민주주의 감수성을 높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자치를 통한 학교민주주의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학교구성원들이 협업과 소통능력을 지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학교자치활성화 지원단이 강사로 나서 오는 7월까지 도내 30여개 단위학교를 찾아 학교 상황과 구성원의 특성, 학교 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분석해 맞춤형 연수로 진행한다.

연수 주요 내용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 자치기구 운영 ▲토론을 통한 교무회의 활성화 ▲신뢰와 협의를 바탕으로 한 학교자치 작동원리 ▲우수사례 발굴 및 소개 ▲학교자치 조력 이해하기 등이다.

연수 완료 후 연수 결과 협의회를 통해 단위학교별 학교자치 안착 현황을 분석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우수한 내용은 확산할 수 있도록 학교자치활성화 지원 자료집도 제작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학교자치 연수는 12월까지 교육지원청 관내 교직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 또는 기타 장소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비전대학교 미용건강과가 최근 뷰티월드엑스포&뷰티페스티벌 결과 시상식을 가졌다.

'꿈을 향해 한걸음 더 가까이'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뷰티월드엑스포&뷰티페스티벌 석권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 미용건강과는 뷰티월드엑스포&뷰티페스티벌 결과 시상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비전대에 따르면 이번 시상식은 사)뷰티창업경영전문가협회 주최로 대전대학교에서 진행된 제2회 뷰티월드 엑스포&뷰티페스티벌 결과가 지난 3일 발표됨에 따라 진행됐다.

전주비전대 미용건강과 사회수요 맞춤형 헤어스타일리스트반에서는 17명이 36개 종목에 출전하여 5개 부문 대상(헤어컬 혼합형-신민정, 두피관리-이유진, 헤어컷트응용-양한수, 헤어컷트 기초-김예지, 업스

타일-오민정) 석권과 함께 최우수상 6개, 우수상 15개, 장려상 5개, 입상 5개의 수상했다.

사회수요맞춤형 에스테티션반에서도 22명이 39개 종목에 출전하여 3개 부문 대상(복부관리-권지우, 발관리-김효인, 림프드레나지-홍유나)와 함께 최우수상 7개, 우수상 8개, 장려상 4개, 입상 3개의 수상 결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혁신지원사업으로 대회에 함께 출전해 선전한 1, 2학년 헤어케어, 스킨케어 전공, 유행상품 개발반에서도 대상 3개 부문(시대에 이크업 조수아, 캐리커 메이크업 임윤영, 헤어크리에이티브 리생),

최우수상 1개, 우수상 4개, 장려상 2개, 입상 8개 등 수상실적도 그동안 쌓아온 미용건강과의 위상을 증명했다.

사회수요맞춤형반 교육 참여를 통해 대회에 참가해 헤어컷트응용 부문 대상을 차지한 양한수(미용건강과 2학년) 학생은 "군대를 다녀오며 미용실무 경력 단절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회준비와 참여에 두려움이 있었지만 지도교수님 및 산업체 전문가 교수님들의 멘토링 특강 등을 통해 충분한 실기테크닉을 향상할 수 있었고 좋은 결과를 통해 앞으로 진로 및 취업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장은성기자

전북대,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자 24일까지 모집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초기창업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된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비 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제한 없이 만 39세 이하의 창업 경험이 없는 사람으로, 전북대에선 18명 내외다.

신청 기간은 오는 24일까지 K-start up(www.k-startup.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 사업을 통해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 창업자에게 사업화 자금 최대 1억 원과 창업교육, 멘토링 등을 지원해 창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전북대 창업지원단은 이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오후 2시 전북대 학습도서관 3층 창업지원단에서 사업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장은성기자

전북교육청, 3·4월 민원우수공무원 선정

전북도교육청은 지난 3월과 4월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민원처리 및 민원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달의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3월의 민원 우수공무원은 전주교육지원청에서 체육 및 체육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수 주무관과 민원 담당자인 홍옥경 주무관이 선정됐다.

이어 4월의 민원 우수공무원으로는 도교육청 감사관 감사3팀 최은영 주무관과 소극행정 민원 담당자인 이백규 주무관이 선정됐다.

3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도교육청 209건·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119건이고, 4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도교육청 58건·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90건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이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빈도, 민원처리 신속성, 민원처리 적정성, 민원만족도 등을 평가해 최고득점자를 민원우수 공무원으로 선정했다. /장은성 기자



홍옥경

김지수



최은영

이백규

김승환 교육감은 민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을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신문고 등 각종 민원처리 시 신속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친절함 민원응대로 민원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내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최고의 대회로"

도체육회, 충북 대축전 해단식 열어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4일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종목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 전국생활체육대축전' 해단식을 열고 체육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충북 일원에서 열린 전국생활체육대축전에 도내에서는 선수와 임원 등 총 1,232명이 40개 종목에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전국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축제 한마당인만큼 시도간의 순위 경쟁보다는 화합의 장으로 진행 된 이번 대회에서 전북 선수단은 등산 종목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또 테니스는 종합 2위를 차지했고 궁도와 택견, 줄다리기 등 각각 종합 3위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개인전과 단체전 등 27개 종목이 입상했고, 개회식 선수단 입장식에서는 '2022년 아시아태평양파스터즈 대회 유치'를 적극 홍보하기도 했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이번 대축전에서 전북의 멋과 맛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며, "내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대축전이 열리는 만큼 차근차근 준비해 최고의 대회로 치르자"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